



2대리구 지산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2022. 05. 08. (다해) 제2320호

제1독서 사도 13,14.43-52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제2독서** 묵시 7,9.14-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0,27-3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교구 성소국장 | 박광훈 안드레아 신부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대부분 부모님께서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조부모님, 아니면 집안의 어른들이 지어주십니다.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예전에는 작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했었지요. 그만큼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평생 불리게 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대로 자라나게 된다고 생각해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짓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름을 지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성소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하느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불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리고 싶은 이름만을 고집하거나, 하느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요한 10,27)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그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목자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목자 곁에 있어야 하고, 자주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축복과 은총 속에 기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 모두도 하느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 주일을 맞이해서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성소는 단 한 번의 부르심이나 단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합당한 응답을 지속해 나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성소 여정이 더없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를 기도합니다. **✠**



인류 가족을 이루라는 부르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59차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곧 하느님과 세상에 귀 기울이는 교회라는 맥락 안에서 '성소'의 더 넓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바깥으로 나가며 역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제는 주체이고 평신도는 실행자라는 사고방식을 경계하며, 평신도와 사목자가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이어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 전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소'라는 단어를 그저 특별한 축성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한정을 지어 이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눈부시게 훌륭한 공동의 집에서, 그 구성 요소들의 조화로운 다양성 안에서 단 하나의 가족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도 '성소'를 가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위대한 공동 성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하느님 사랑의 눈길은 늘 우리에게 닿아 있고 우리를 어루만지며, 우리를 해방시키고 변화시켜 우리가 새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눈길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성소에 더욱더 마음이 열리도록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또한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경청하는 법을 배웁시다.

사랑과 창조의 하느님 눈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독자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눈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눈길에 마음을 움직여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를 내어 맡깁시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눈길을 환대할 때 변화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 주님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나누는 성소의 대화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우리가 더욱더 본연의 모습이 되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과 세상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는 모든 교회적 성소와 직무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선에 봉사하고 사랑을 널리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각각 그 자체로도 사랑스럽지만 모두 함께 모여 있을 때에만 하나의 그림을 이룹니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는 더욱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형제애의 위대한 전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 안에서 각 성소는 공동의 목적에 이바지합니다. 성령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다양한 은총의 조화를 모든 이 가운데 널리 알리려는 목적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느님 백성이 이러한 부르심에 더욱 잘 응답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두 이 위대한 하느님 계획 안에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찾고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의 빛을 청합시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창세 3,9)

성바오로딸수도회 | 김베로니카 수녀

하느님께서 저를 보다 당신 가까이에 머물게 하려고 성바오로딸수도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복음 선포 사명을 받은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들은 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준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미디어 사용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성찰을 이끌어주는 말씀은 “내 마음아, 너 어디 있니?”입니다. 이 말씀은 창립자이신 복자 야코보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성바오로딸들에게 주신 영적 유산입니다.

예전에 겪은 체험이 떠오릅니다. 하루는 사도직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난 후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웹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녀님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왔고 저의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곧바로 사용하

던 컴퓨터를 정리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체 앞에 앉아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수녀님이 들어오셨는지,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지나갔더라면 제가 당당할 수 있었을 텐데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니?”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저의 모습을 미화하고 변명하고 있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환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눈길 앞에서 저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의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탓함 없이 나의 선택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를 탓하고 제 모습은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저에 대한 안타까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으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창세기의 말씀은 당신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어린 연민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창립자 신부님의 말씀으로 하루 삶을 돌아볼 때면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필름**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1년

사목방문을 시작하다

9월 1일 금요일

카넬 신부가 다시 떠났다.

9월 2일 토요일

나는 여러 동료 신부들에게 그들이 추천했던 학생들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용산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음을 알려야 했다.

9월 3일 일요일

한 가톨릭 청년회가 지난해 부활절부터 ‘명도회’(明道會)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름만을 존속시키기로 하고 그 회의 지도를 맡았었다. 이제 새로운 체계가 완전히 그 구실을 다하고 있었다.

9월 8일 금요일

나는 서 아오스딩(徐相墩)에게 만약 그가 땅을 증여하는 데 따르는 많은 장애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증여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통고했다.

9월 10일 일요일

사목 방문을 위해 마지막 출발 준비를 했다.

9월 11일 월요일

나는 내 복사와 함께 급행열차를 탔다. 선교사들과 많은 교우들이 나를 역까지 전송했다. 베르몽(Bermond, 睦世永) 신부의 복사인 박 요한(朴準鎬)이 대전(大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밤을 지내기 위해 일본인 호텔로 갔다. 태풍이 시작되었다.

9월 12일 화요일

이 일본인 호텔들은 비바람이 사방 어느 곳으로도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잘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12시 50분 열차 편으로 대전을 떠나 2시 10분 연산(連山)에 도착했다. 기차선로는 거기까지밖에 놓여있지 않았다. 상당히 힘이 든 하천을 건너 우중에 말을 타고 40리 길을 갔다. 교우들이 횃불을 들고 되재(升峙)에서 10리 떨어진 곳까지 왔다. 본당은 불이 켜져 있었고, 해 질 무렵에 비가 그쳤다. 베르모렐 신부와 베르몽 신부는 온종일 고해성사를 주었다.

9월 13일 수요일

아침에는 장엄미사를 드렸는데, 근 400명의 영성체자가 있었다. 오후에는 강론을 했고,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들의 시험을 치렀다.

57. 사목적 전망 ②

“본당은 가정 사목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본당은 여러 가정들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가정이며 소공동체들과 교회 운동과 단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기여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사목과 더불어, “사제와 부제, 남녀 수도자와 교리교사와 다른 사목 봉사자들을 위한 더욱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시노드 자문에 대한 답변은 또한 가정 사목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목적 준비를 잘하는 것은 “가정 폭력과 성적 학대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특히 위급한 상황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성 지도의 근본적 가치, 교회와 고해성사의 소중한 영적 부요를 결코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 202-204항)



대구대교구 순교자 현양 기행문 공모전

주제 | 친교를 통하여 복음의 기쁨을 살아간 이들

방법 | 교구 내 성지순례 후 기행문 작성(A4 11포인트 2장 이상, 원고지 10매 이상)

제출 | 월간 [빛] 사무실 방문 및 이메일 제출(E-mail : dp21lightzine@dgca.kr)

문의 | 053-255-8405(월간 빛) **주관/주최** | 관덕정순교기념관/ 월간[빛]

참여방법

- 그동안 열심히 써주신 말씀의 해 안내지 구약성경(1호~66호 전체)을 본당 신부님께 보여주시고, 66호(2022년 4월 10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경읽기 부분 상단에 본당 신부님의 확인(도장 또는 사인)을 받습니다.
- 신부님의 확인이 잘 보이도록 '말씀의 해 안내지 66호 앞면'을 사진으로 한 장만 찍은 후, 교구 사목국 카페(<https://cafe.daum.net/dgsamok>) '구약성경 이벤트 글' 댓글에 사진과 개인정보를 첨부해주세요.

※ 휴대폰으로 우측 QR코드를 검색하시면 사목국 카페로 바로 연결됩니다.

참여기간 | 2022년 5월 22일(주일)까지

‘말씀의 해 안내지’ 구약성경 이벤트

말씀의 해 안내지 69호 정답

1. 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②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2. 등과 기름 3.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4. ④

'위드 코로나'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박성규 엘리지오

신앙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9일(월) 10:00 황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9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10일(화) 11:30 계산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9일(월) 11:00 범어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11일(수)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9일(월) 11:00 봉곡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14일(토) 10:00 월성성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본원 모임)

일시: 5.14(토) 14:00~5.15(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왜관)
문의: (010)8353-2323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5.22(일) 11:00~16:00
장소: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장소: 예수회 한국관구 성소실
문의: vocation.sj@gmail.com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노아 수녀, (010)9353-1773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시간: 수시 문의 / 장소: 창원 젊음의 집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5.17(화)~18(수)
시니어: 5.24(화)~5.25(수)
문의: (054)382-0091

대구 예수마음기도 피정(5주과정)

기간: 5.23~6.20
매주 월 10:00~16:00

장소: 성김대건 성당
대상: 하느님과 깊게 만나고 싶은 분
신청: 교육수녀회, (010)9620-5603

성모솔숨마을 호소 단식치유 피정

주제: 몸은 가볍게, 영은 맑게
날짜: 6.3(금)~5(일) / 6.17(금)~19(일)
비용: 20만원(호소포함) / 영성상담 가능
문의: (010)5613-0166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주제: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 마감: 6.2(목)
일자: 6.10(금)~12(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대구시 사수동)
문의: 한국CLC, (02)333-9898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1박 2일: 6.11~12 / 7.9~10
3박 4일: 5.23~27(4박5일) / 6.16~19
8박 9일: 5.11~19 / 6.1~9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교구 외 | 기타 알림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향초만들기 원데이클래스
일자: 5.21(토)
문의: (010)5639-8071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선종지

문경 진안리 성지에서 선종의
은혜를 구하는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담당사제: (010)9944-0145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리를 들어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백합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4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언수 (포랑치스코)
중앙내거리 < 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정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2대 반세기, 건강관 관철,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익두(아오스당),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림로 142 (미마트 삼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대로 100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윤영하 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현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교구 | 대리구 알림

세계가정대회 주제가 합창·중창 대회(비대면)

기간: 6.1(수)~6.10(금)

대상: 신자 누구나 (가족 또는 단체단위)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지수(레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2022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5.2(월)~13(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1(일반), 3508(교육)

660-5253~4(특수)

<http://www.cu.ac.kr>

38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국가: 캐나다, 필리핀

과정: 대학생 및 가족연수, 영주권

출국일: 4주 이상(개별 선택)

설명회: 5.14(토) 14:00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5.17(화)~25(수)

접수처: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자세한 사항은 선목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dgsunmok.or.kr>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연말정산문의: 650-3529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외과(유방·갑상선)

문의: 320-2120 / (010)7372-0076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바오로딸 영성 프로그램

내 영혼의 글쓰기: 5.12(목 8주) 14:00~

말씀과 함께하는 부부영성 :

5.12(매주 목 6주)19:00~21:00

강사: 최성욱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신청: 바오로딸, (010)6681-5185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심리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 모임

일시: 5.9(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주제: 전례봉사자1(교재 있음)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ANGEL 포장이사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9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나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월관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